

# 4월께 '첫 삽'...콘텐츠위 전문가로 구성해야

## 광주문학관 건립 어디까지 왔나

문학관은 작가의 문학적 혼과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특히 문학관은 지역 문화의 중심 내지는 콘텐츠 생산 기지, 나아가 문화관광의 중심점이 된다. 문학관이 문인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기록 보관서로서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단순한 예술적 공간을 넘어 사유와 사유,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이 합류되고 교섭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다.

광주문학관의 건립 당위성, 지금까지의 추진 약사를 비롯해 문학관을 어떻게 꾸미고 콘텐츠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추진위 활동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광주의 첫 문학관으로서 '광주문학관'의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지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최근 열린 콘텐츠추진위원회 회의의 결과는 광주문학관이 문학과 시민들의 연원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 ◇문학관 건립 당위성과 장소

현재 전국에는 80여 개 문학관이 있다. 그러나 문화수도라 자처하는 광주에는 문학관이 없다. 문학관이 없는 광주에, 내로라하는 문학인은 많다. 이를 문학적 용어로 아이러니라고 한다. '나두야 간다'의 박용철, 동요 '강아지', '봄맞이'로 유명한 김태오, 광주가 키워낸 '고독의 시인' 김현승, '휴전선'의 박봉우, '전라도'의 이상부, '사평역에서'의 객재구가 있다.

비록 광주 출신은 아니지만 송기숙, 문순태, 한승원, 이승우, 공선옥 등은 광주와 남도 정서를 바탕으로 작품을 형성한 지역의 대표 문인들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중단됐던 문학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시는 사업비 171억원을 들여 건축연면적 2730여㎡,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 12월께 북구 시화문화마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시화문화마을은 2004년 주민들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곳이다. 인근에 미술관과 청소년문화의집, 각화저수지 수변공원 등이 있어 다양한 문화공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향후 일정은 3월 중 전시설계용역 발주, 4월 건축설계 공모 결과 발표 및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말께는 개관할 것으로 보인다.

## 25년 지남한 역사...내년 말 완공예정 콘텐츠위 참여인사 다수 전문성 미흡 학예사·연구자 등 관련 전문팀 시급

### ◇광주문학관 추진 역사

광주문학관 건립은 그 자체로 지남한 역사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지난 1996년 '문학의 해' 대규모 문학동산 조성 계획이 문학관 시초였다 할 수 있다. 2009년에는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용 처리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어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2013년에는 '빛고을문학관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협상대상지로 명성예식장, 히딩크호텔 등이 거론됐지만 범 문단 측 추진위원회에서 반대 결의로 무산됐다.

2014년 2월에는 광주문인협회에서 '광주문학관 건립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원로를 중심으로 개최한 좌담회였다.

이후 2014년 10월 범 문단 측 빛고을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는 "방문객이 용이한 곳에 문학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결의했다. 사유지 매입을 억제하고 시 보유지 땅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으며 준비과정에 있어 문학인들과의 교감을 강조했다.

2017년 10월에는 광주문학관건립추진위가 광주문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1만157인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임원직 광주문인협회 회장과 박관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이 중심이 돼 활동을 전개했다. 2018년에는 추진위 간담회, 운영조례 제정 등이 보고됐으며 2018년 12월에 문학관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다. 시는 '광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회에서 각화동 시화문화마을을 1순위 후보지로 발표했다.

### ◇콘텐츠위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해야

그러나 20년 넘게 숙원사업이었던 문학관은 최근 열린 콘텐츠위원회의 전문성, 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콘텐츠위는 전시 설계 추진 방향, 전시실 구성 콘텐츠,



광주문학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북구시화마을

(광주일보 자료 사진)

문학관 명칭 및 전시실 외 공간 구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문제는 위원 10명 가운데 콘텐츠 전문가는 1-2명뿐이어서 문학관이 콘텐츠를 제대로 담아낼지 의문이라는 게 문단안팎과 시민들의 여론이다. 특히 소수를 제외한 위원들 대다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콘텐츠위에 참여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이며, 어떤 위원은 소모적 논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의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A위원은 "콘텐츠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들 대다수가 70대 이상이며 소수위원만 50대 중반이어서 콘텐츠라는 개념조차 모른다"며 "회의에 앞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소한 박사과정 이상 대학원생, 박사학위자 또는 전문 학예사, 연구자 등을 추천 또는 선발하든지 해 전문 연구팀을 꾸려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지역 문학단체에서 몇몇의 문인들이 '정치적·기계적'으로 배분해 구성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50% 가까이 콘텐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식견이 없다보니 주제와 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염불보다는 잣대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다.

B위원은 "어떤 위원들은 문학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과연 문단과 시민들 입장에서 문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기가 낸 책을 참조해서 '콘텐츠를 구상하라'라는 식으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C위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자기들 속한 단체 위주로 부스 얘기를 하던데, 작고 문인과 한국문학사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만 콘텐츠화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위원들 면면을 보면 전문성 부재가 가장 큰 문제여서, 저 또한 조만간 사임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위원은 "저를 비롯해 문학을 한다고 해서 다 콘텐츠 전문가가 아니다. 꽃을 재배한다고 해서 플로리스트가 아닌 것과 같다"며 "차체에 콘텐츠 전문가 또는 콘텐츠 연구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개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콘텐츠를 어느 정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건립추진위에서 콘텐츠위원을 다수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생산적 논의과정으로 봐달라"며 "콘텐츠위의 의견도 청취하겠지만 개선행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공원 광합성 프로젝트 '풍물아 놀자'로 출발

광주 최초 도심공원인 광주공원의 기능을 되살리고 구도심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 주변 14개 기관이 함께 시작한 '광주공원 광합성 프로젝트'가 올 한해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광주공원 광합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4개 기관의 협약을 통해 시작했다. 광주향교·성거사·419문화원·광주시민회관(도시문화집단CS)·임방울국악진흥회·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광주공원 노인복지관·광주 매일신문·영무토건·푸른도시사업소·마을기업 꿈꾸는 거북이·심비오협동조합·광주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광주문화재단 등(이하 구구 구동)은 지난해 광주공원의 역사공원 기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구구 구동이 함께 로컬의 멋(천년 의향역사)을 품은 그린뉴딜(도시공원) 및 디지털뉴딜(미디어아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목표로 중장기 할 일을 계획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광주공원' 조성을 위한 구구 구동이 활동이 활발하다. 또한 광주시 1호 공원 '역사·문화관광지' 명칭 회복을 위한 역사관광, 예술관광 활성화와 3·4·5·6월 의향 정신 테마 문화행사의 거점이 되는 광장 조성도 포함된다. 아울러 천년역사 사직동(광주공원+사직공원)과 백년역사 양림동을 연계하여 광주전남 역사의 거점화도 포함된다.

올해의 첫 활동은 4·19문화원, 광주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예술로 공동체 소통-풍물아 놀자' 예술교실 운영이다. 광주의 심장부인 광주공원에서 심장 뛰는 소리와 닮은 풍물을 통해 소통을 해보자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https://bit.ly/3bYxgUU>) 하고, 첫 수업은 2월 2일부터 진행된다. 화요일은 초급반, 목요일은 중급반으로 무료 운영된다.

'풍물아 놀자' 참가자는 광주공원 활동가 '구구 구동'이 활동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예술로 신명나게 풀어가는 주체가 되며, 향후 광주공원 전체에서 신명나는 풍물놀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곳곳의 주민센터 등의 풍물교실과 연계하여 풍물로 광주가 하나되는 세상을 꿈꾸며 기획했다. 문의 062-670-745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진행된 '꼬불꼬불거북이투어'

## 광주시립극단 '레옹세와 레나' 배우 16명 공개 모집

광주시립극단이 제16회 정기공연 '레옹세와 레나'에 참여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연습 및 공연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배우 총 16명을 모집하며, 응시자는 오는 2월 5일 오후 4시까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jdrama@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2월 8일 오전 10시 광주

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실시하며, 응시자는 지정연기, 지정독백 낭독, 기타 자유연기 및 특기사항(춤, 노래 등)을 준비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2월 10일 발표예정이다.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 홈페이지(<http://gjart.k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레옹세와 레나'는 24세의 나이로 요절한 독일의 천재 극작가인 게오르크 뷔히너(1813-1837)의 작품이다. 뷔히너는 19세기 초 고전 낭만주의의 전통을 깨뜨리고 냉철한 사실주의, 부조리와 소의 등 현대연극의 주요 특징들을 선구적으로 표현해 자연주의자와 표현주의자의 선구자로 일컬어진다.

그가 쓴 총 3편의 희곡 중 하나인 '레옹세와 레나'는 권태로운 삶에 지친 왕자 레옹세가 정락결혼을 피해 달아나며 벌어지는 엉뚱하고

유쾌한 소동을 다룬 희극이다. 풍부한 문학적 인용과 암시가 기교적으로 어우러진 작품으로, 유쾌함의 이면에는 꼭두각시로 전락한 궁정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신랄한 정치적 풍자가 숨겨져 있다.

이번 공연은 원광연 광주연극협회장이 각색·연출을 맡았으며, 오는 4월 22-2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823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